

## 섬기는 봉사직과 교회 일치 운동

2018년 4월 Divine Mercy 지구 형제회는 지구 총회에서 Ms Cami Mann, OFS 를 지구 형제회의 교회일치 운동 봉사자로 임명하였습니다. Cami 는 미시간주 Grand Rapid 의 Our Mother of Sorrows 형제회 회원으로, 여러 해 동안 교회일치 운동과 종교 간 봉사 활동에 봉사를 하여서, 교회일치 운동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Mike Carsten 에 의하면 Divine Mercy 지구 형제회가 이러한 직책을 공식적으로 임명한 첫 번째 지구 형제회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노력을 하도록 Cami 가 이끌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Cami 는 형제회의 봉사직에 들어오라는 초대에 응했습니다. 물론 이 봉사직은 새로운 역할이기 때문에, 그녀는 지구 형제회 안에서 교회일치 운동에 관한 홍보 프로그램의 역할, 기대, 의사소통 및 구현 방법 등을 계획하고 실행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형제회 안에 이러한 역할이 필요하고 유용한가에 대한 내부의 지원과 도전을 직면하게 될 때, 당연히 위험과 반대, 믿음의 도약, 새로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구 형제회 안에 새로운 역할을 지원할 자금도, 아무런 지지도, 공식적인 업무 설명서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녀는 봉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 교회 일치의 홍보

저는 재속 프란치스칸 모두가 믿음의 도약으로 섬기는 봉사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형제회 안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존엄성을 가졌고, 봉사직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자매들을 섬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Cami 는 형제회에서의 봉사에 낯설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한 형제회의 소극적인 사회참여를 적극적인 참여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여러 해 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그녀는 반대에 직면하는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Our Mother of Sorrows 형제회의 여정에는 기쁨과 슬픔, 분열과 고통스러운 성장이 있었으나, 기도와 분별, 그리고 성령의 움직임을 받아들여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일을 잘할 수 없다, 또는 시간을 너무 빼앗길 것이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도약을 가지고 섬기는 봉사직을 하기를 꺼립니다. 저는 믿음의 도약을 받아들여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제회 봉사에 “예”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인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한 우리의 소명이며 헌신과 사랑을 풍성하게 합니다.

Cami 가 자신을 소개하기 전에, Mike Carsten, OFS 가 국가 형제회의 교회일치 및 타종교와의 대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종교의 프란치스칸 참가자들과 나누었던 영상을 우리들과 나누었습니다.

Cami 는 모임에 참석한 한 회원으로부터 즉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회원은 다른 종교의 프란치스칸들과 소통하려는 욕구에 대하여 "그들을 우리의 모임에 초청한다면, 우리가 가톨릭인 것이 왜 중요할까요?"라고 물어 참가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식으로 프란치스칸이 되려면 '가톨릭'이어야 한다", "신앙에 관계없이 프란치스칸이 될 수 있다", 또는

"전혀 신앙이 없어도" 등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보수, 진보, 전통 등 여러 호칭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토론은 약간의 변증론, 역사, 전통, 개인적 증언 등으로 조금씩 뜨거워져 가면서, 감정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일부는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장이 불편해지는 것을 잘 알면서, 조금 더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고 느꼈을 때, 저는 토론을 중단하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토론이야말로 종교 일치 및 대화위원장의 위치가 왜 필요한지의 증거이며, 대화와 교육 그리고 이해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원이 되려면 "가톨릭" 이어야 하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치관과 삶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인인 우리가 서약하는 회칙 40 주년에 초점을 두면서, 종교 간의 대화가 어떻게 회칙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13 조:** "성부께서 ... 성자의 모습을 각 사람 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회원도 모든 사람을 주님의 선물이자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겸손하고 인간답게 받아들일 것이다."

**제 14 조:** "선이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회원들은 불리움을 받았다."

**제 19 조:** "회원은 누구든지 신적 요소가 있으며 ... 사랑의 힘으로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화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성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는 아씨시에서 여러 종교의 대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신성의 씨앗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먼저 사람을 예수와의 관계로 이끌고, 성령께서 당신의 사업을 하시도록 하면, 아마 그들도 교회와의 통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프란치스코 성인이 "종교개혁 이전"의 세상에 살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의 시대에는 루터교도, 성공회도, 유니테리안도 없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있는 지 500 년이 지난 지금, 프란치스코 성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단순한 삶을 살고, 빈곤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여건" (회칙 제 13 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종교 일치에 대한 몇 가지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종교일치운동을 설명하는 저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종교일치운동이 아닌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종교일치운동은 성서 인용과 호교론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일치운동은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종교일치운동은 도덕과 신앙에 관한 상대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해야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가치관이나 견해를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느껴서 종교일치를 위한 대화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교일치를 위한 대화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들의 견해를 듣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서, 놀랍게도 우리들 사이에 공통적인 것이 다른 것 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더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 데려 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임에서 제기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저는 교회와 성사, 전례와 풍요로운 전통, (선하고, 악하고, 추한) 역사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의 저의 여정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입니다. 저는 하느님이 저를 부른 곳이 이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입니다. 아마도 성령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알아보도록 고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경과 종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예의를 갖춘 대화를 하고, 평화와 기쁨으로 그들에게서 신성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한, 저는 하느님께서 제 앞으로 보내주신 바로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비판하고,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저는 우리 형제회와 교회에서, 우리와 같이 프란시스코 성인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형제자매들과의 종교일치를 위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 큰 봉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은 포괄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 영혼을 데려 오는 것을 우리가 붙인 꼬리표가 막지 않게 하십시오.